



미 증시, 2분기 성장률 부진에도 제한적 강세

미국 증시 리뷰

29일(목) 미국 3대 증시는 2분기 성장률 및 실업지표 부진에도, 이로 인한 연준의 연내 조기 테이퍼링 우려 완화, 애플(+0.5%), 테슬라(+4.7%), 페이스북(-4.0%) 등 주요 기업들의 혼재된 주가 흐름에 영향을 받으면서 제한적인 상승세로 마감(다우 +0.4%, S&P500 +0.4%, 나스닥 +0.1%). 업종별로는 커뮤니케이션(-0.9%), 부동산(-0.2%)을 제외한 소재(+1.1%), 금융(+1.1%), 에너지(+0.9%), 경기소비재(+0.4%) 등 전업종이 강세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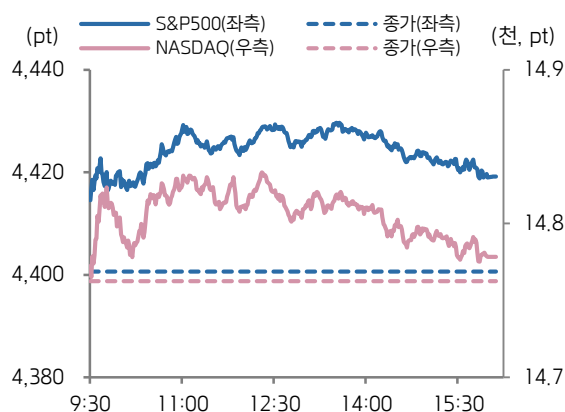
미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 속보치는 6.5%(연율)로 전분기(6.3%)에 비해 확대됐으나, 예상치(8.4%)는 큰 폭 하회. 2분기 중 바이든 정부의 부양책 효과에 힘입어 개인 소비 지출(11.4%→11.8%)이 늘어났음에도, 비거주용 고정투자(12.9%→8.0%), 거주용 고정투자(13.3%→9.8%)가 둔화했다는 점이 2분기 성장률 부진을 견인. 2분기 근원 PCE 물가는 6.5%로 전분기(4.3%) 및 예상치(5.4%)를 큰 폭 상회하면서 2분기 중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았음을 재확인. 한편,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는 40.0 만건으로 전주(42.4 만건)에 비해 감소했으나, 예상치(38.0 만건)에는 미치지 못함

미국 증시 평가

경제 성장률 및 기업 실적 피크아웃 불안감이 상존하는 가운데, 금번 발표된 2분기 성장률 쇼크가 이 같은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가 있었음. 그러나 병목현상 등 일시적인 공급차질에서 기인한 재고 및 투자 감소가 성장률 하락의 주된 배경이었던 것으로 보이며, 민간 소비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오히려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. 미국 경제 규모를 감안 시 5% 이상의 고 성장률 이후의 피크아웃은 불가피하지만 추후에도 인프라 투자를 통한 성장 모멘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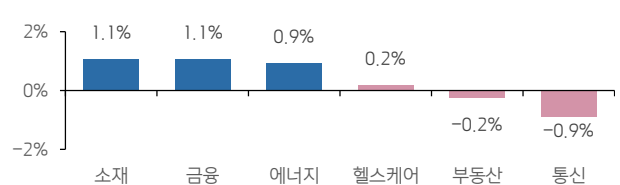
더 나아가 연준에서도 성장률의 과도한 피크아웃(성장률 대폭 하락)을 피하기 위해 연내부터 조기 긴축 사이클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확산됐다는 점이 금번 2분기 성장률 부진을 시장이 큰 충격없이 소화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판단.

S&P500&NASDAQ 일중 차트(7월 29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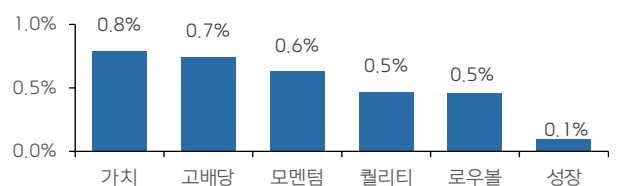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7월 29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위 3



7월 29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

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| MSCI 한국 지수 ETF 는 +0.72% 상승, MSCI 신흥국 ETF 는 +0.5% 상승. 유렉스 야간선물은 0.22% 상승. NDF 달러/원 환율 1개월물은 1,143.59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, 달러/원 환율은 2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. |
| 주요 체크 사항 | 1. 아마존 실적 부진 및 시간외 주가 급락에 따른 국내 언택트주들의 주가 변동성 2. SK 바이오사이언스, 삼성중공업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3. 전거래일 반등에 성공한 중화권 증시의 추가 상승에 따른 중국발 불안감 완화 여부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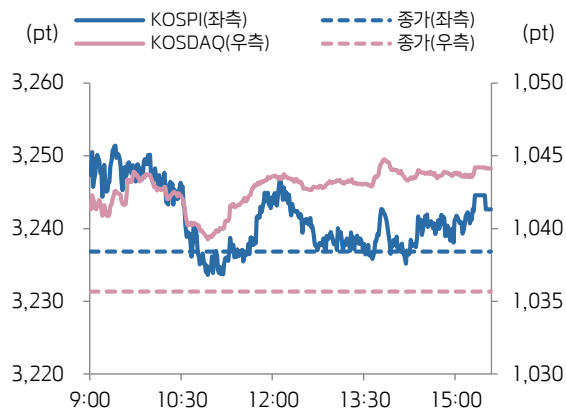
한국 증시 리뷰

29 일(목) 코스피는 예상에 부합했던 7 월 FOMC 결과, 중화권 증시 폭락세 진정, 원/달러 환율 하락 등 우호적인 대외 환경에도, 국내 2 분기 실적 시즌 피크아웃 경계심리 속 개별 실적에 따른 업종간 차별화된 주가흐름을 보임. 또한 2 분기 상세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황センチ멘트 회복 지연이 전반적인 지수 상승탄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(코스피 +0.2%, 코스닥 +0.8%). 업종별로는 음식료(+2.0%), 섬유 의복(+1.5%), 비금속광물(+1.1%) 등이 강세, 철강금속(-1.2%), 운수항공(-0.7%), 의료정밀(-0.6%) 등이 약세. 수급별로는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2,260 억원, 180 억원 순매도, 기관이 2,580 억원 순매수를 기록.

한국 증시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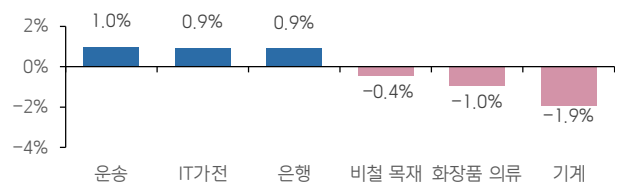
한국 증시는 미국 2 분기 성장률 쇼크에도 상승한 미국 증시, 역외 원/달러 환율 하락, 중화권 증시 패닉 진정 등 양호한 대외 환경에도, 국내 2 분기 실적 시즌 부담감이 전반적인 지수 움직임을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. 현재까지 삼성전자, 현대차, LG 화학 등 대부분 시총 상위주들의 실적 발표가 진행. 2 분기 실적보다 가이드스 변화에 따라 주가 반응이 차별화되고 있다는 점은 시장 참여자들이 실적 시즌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피크 아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임. 다만, 피크 아웃 우려는 7 월 이후 지속적으로 시장에 노출된 재료였던 만큼, 실적 시즌 후반부로 갈수록 완화될 전망. 한편, 최근 외국인 수급은 환율 뿐만 아니라, 미국 장 마감 후 미국 내 테크 대장주들의 시간외 주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. 현재 아마존이 장 마감 후 발표한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했다는 소식에 시간외 주가가 7% 내외의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 시, 금일 국내 증시에서도 성장주, 언택트주들의 주가 변동성 확대에 유의할 필요.

KOSPI & KOSDAQ 일중 차트(7월 29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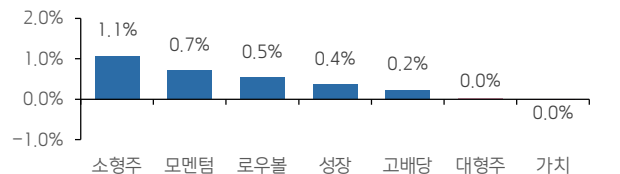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7월 29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위 3



7월 29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Quantiwise, 키움증권

Compliance Notice

-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-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사항

-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